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4년 10월 22일(화) 10:00
배포일시	2024년 10월 22일(화) 09:00
배포부서	KDI 홍보팀(044-550-4030, press@kdi.re.kr)
담당자	정대희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 (044-550-4211, dhjeong@kdi.re.kr)

KDI - 브루킹스연구소, “새로운 글로벌 다이내믹스” 공동연구 보고서 발간

- KDI는 글로벌 톱 싱크탱크인 美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와 세 번째 공동연구 보고서인 ‘새로운 글로벌 다이내믹스: 전환하는 세계에서 경제변화 관리 (New Global Dynamics: Managing Economic Change in a Transforming World)’을 발간
- 올해 KDI-브루킹스연구소 공동연구 보고서 발간 기념행사는 21일 (현지시간) 美 워싱턴 D·C 브루킹스연구소에서 개최
- 발간 기념행사에서는 조동철 KDI 원장과 세실리아 엘레나 라우즈 브루킹스 연구소장의 개회사, 정대희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의 서두 발언에 이어 로라 타이슨 UC 버클리대 교수, 리처드 볼드윈 IMD 경영대학원 교수, 애나벨 곤잘레스 미주개발은행 국가 담당 부총재, 에스와 프라사드 코넬대 교수 겸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등이 패널토론에 참여

□ 이번 보고서는 지정학과 국제 권력 구조의 변화, 전환적 혁신 기술의 발전 및 기후변화가 세계화, 산업과 시장, 국제무역 및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고 국가 및 글로벌 관점에서의 정책 과제를 논의하는데 목적을 둠

○ 미·중 전략경쟁으로 지정학적 긴장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국가주의적 정책과 보호주의가 부상하고 있어, 세계 경제는 다자 협력과 공조가 점차 어려워지는 환경에 처해 있음.

○ 디지털 혁명은 일하는 방식에서부터 사업모델, 생산방식, 국제무역 및 금융 네트워크까지 근본적인 변혁을 초래하고 있으나, 그에 따른 복잡한 디지털 시장 규제·감독 시스템의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며, 이와 더불어 사회·정치적 양극화 심화, 주요국 기술 국가주의 부상 등 문제도 산재

○ 기후변화는 국내적으로는 대규모 구조변화의 과제를, 국제적으로는 불안한 지정학 속에서 그린 기술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국제협력의 과제를 남기고 있음.

□ 본 보고서는 세계화의 미래, 산업과 시장, 국제무역, 금융시스템 등 네 개 파트로 나누어 각각의 경제 변화를 살펴보고 관련된 정책 제안을 제시*

* 자세한 내용은 첨부 1. 파트별 주요내용 요약 참조

□ 조동철 KDI 원장은 “규칙에 기반한 다자간 질서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공동연구 보고서가 “정책 입안자, 학자, 글로벌 커뮤니티가 협력해 새로운 글로벌 다이내믹스를 관리하고, 보다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글로벌경제를 만드는 촉매제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힘.

□ 한편, 발간된 보고서는 브루킹스 홈페이지에서 11월 1일부터 구매 가능

○ <https://www.brookings.edu/books/new-global-dynamics/>

❖ **첨 부 1. 파트별 주요 내용 요약**

❖ **첨 부 2. 보고서 주요 목차**

❖ **첨 부 3. 보고서 표지**

❖ **별 첨. 발간 기념 행사 현장 사진 (10월 22일(화) 09:30 배포)**

❖ 첨부 1. 파트별 주요 내용 요약

파트 1: 세계화의 미래

□ [전환하는 세계화] 로라 타이슨 교수, 존 자이스만 교수, 브라이언 저지 박사 (이상 UC 버클리)는 지정학적 변화와 기술 발전에 의해 세계화가 변화하는 양상을 분석

- 저자들은 세계화가 긍정합(positive-sum)에서 제로섬(zero-sum)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분석하며 세계 경제가 여전히 상호 연결되어 있지만, 디지털화와 서비스 중심의 경제로 재구조화되는 가운데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지정학적 경계를 따라 연계성이 강화되는 방식으로 재구조화되고 있어, 더 높은 불확실성, 불안정 및 분쟁에 노출되어 있다고 주장
-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통해 새로운 글로벌ダイ나믹스에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반도체와 같은 전략적 부문에서 동맹국 간 산업 정책 조율을 통해 파괴적 경쟁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

□ [아시아 세기] 임원혁 교수(KDI 국제정책대학원)는 아시아 경제의 미래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도전 과제를 제시

- 아시아 경제는 구조개혁과 외부여건 상황에 따라 현재까지의 역동성과 번영을 지속하는 “아시아 세기”, 구조개혁 실패 시 “중진국 함정”, 미·중 갈등 심화로 대외여건이 악화되는 경우 “위태로운 번영”, 구조개혁 실패와 더불어 대외여건 악화 시 “위기와 갈등” 시나리오를 직면할 수 있음.
- 아시아 국가들은 글로벌 및 지역적으로 규칙에 기반한 질서를 지속 추구하고, 포용적 경제 및 안보 프레임워크를 확대하며, 대만 문제와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불확실한 대외 여건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파트 2: 산업과 시장

- [디지털 전환과 정책과제] 다이앤 코일 교수(케임브릿지대)는 디지털 기술이 글로벌 시장을 변화시키는 양상에 대해 분석하고 주요 문제를 진단
 -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글로벌 시장을 빠르게 재구조화하는 가운데, 규제 대응은 이에 비해 뒤처져 있다고 주장하며,
 - 데이터 거버넌스, 경쟁 정책 및 규제를 디지털 시대에 맞도록 개선하기 위해 국제 공조와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고, 특히 AI 등 첨단 기술 관련 산업에서는 변화하는 지정학 속에서 더 많은 협력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

- [산업 정책의 부활] 저스틴 이푸 린 교수(북경대)와 셀레스탱 몽가 교수(하버드대)는 산업 정책이 경제 성장과 구조적 개혁을 위한 핵심 요소라고 주장하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서 산업 정책을 대하는 이중 기준을 비판
 - 저자들은 주류 경제학에 산업 정책에 대한 “이중 기준”이 존재한다고 비판하며, 전통적으로 개발도상국의 산업 정책은 권장하지 않았던 반면, 최근 선진국의 산업 정책 확대에 대해서는 지지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점을 지적
 - 산업 정책의 타당성에 대한 논쟁보다는, 산업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방법에 집중할 것을 강조하며, 전략적으로 구조변화를 촉진하는 과정으로 산업 정책을 이해해야 하고, 정부의 역할이 시장실패 보완이라는 전통적인 영역을 넘어 시장을 창조하고 재편성하는 영역까지 확대(“새로운 워싱턴 컨센서스”)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

파트 3: 국제무역

- [디지털 무역과 정책] 버나드 호크만 교수(EUI)는 디지털 무역의 도전과 기회를 분석하며, 디지털 시장의 개방성과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규칙의 필요성을 강조
 - 디지털 무역에 대한 다자간 합의를 통해 데이터 관리와 무역 개방성을 보장하고, “스플린터넷(splinternet)”으로 불리는 디지털 경제의 분절화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을 제안
 - 한편, 디지털 정책 협력이 지역적, 다자간, 그리고 다국적 협정의 혼합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하며, WTO가 디지털 무역의 다양한 규제 체제를 다자적으로 검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

- [글로벌 가치사슬의 변화] 이시욱 교수(KDI 국제정책대학원)는 기술변화와 지정학적 긴장에 따른 글로벌 가치사슬의 변화를 분석하며, 국제협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
 - 첨단·이중 용도 기술과 관련이 높은 전략 산업에서 선택적 탈동조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탄소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 과정에서 환경 규제가 보호주의와 결합되는 경우, 관련 산업의 공급망 차질이 재발할 우려가 존재한다고 진단
 - 글로벌 가치사슬의 회복력 강화를 위해 복수국 간 이니셔티브와 같은 국제 협력이 중요하며, WTO의 법적 프레임워크에서 복수국 간 이니셔티브를 논의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

파트 4: 금융 시스템

- [화폐와 금융의 디지털 전환] 에스와 프라사드 교수(코넬대,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위원)는 암호화폐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를 포함한 디지털 기술이 국제 통화 시스템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분석
 - 디지털 기술이 국경 간 금융 흐름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을 기대하며,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반의 시스템이 국제 금융 시장을 재구성할 수 있다고 진단
 - 저개발 국가들은 주요국 디지털 화폐와의 경쟁으로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으나, 미국 달러는 디지털 화폐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배적 위치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

- [국제금융체제 재편] 함준호 교수(연세대)와 최우진 교수(고려대)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을 검토하고,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주요 개선 영역을 제시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 자본흐름이 은행 대출에서 채권 투자로 전환되는 가운데 비은행금융기관의 역할이 확대되었고, 이 과정에서 신흥·개도국 시장의 취약성이 재차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
 - 국제 최종대부자 기능의 확장을 위한 IMF 특별인출권의 역할 확대, 글로벌 연계성 및 파급효과 모니터링을 통한 국제 공조, 은행에서 비은행금융기관으로의 금융규제 프레임워크 강화, 국가 부채 구조조정 프레임워크 개발 등을 통해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취약성 보완 필요성을 강조

❖ 첨부 2. 보고서 주요 목차

1. Overview: Challenges of Managing Transformative Change

지아 쿠레쉬 美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정대희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

Part I: The Future of Globalization

2. The New Logic of Globalization: Uncertainty, Volatility, and the Digital Economy

로라 타이슨 UC 버클리 교수
존 자이스만 UC 버클리 교수
브라이언 저지 UC 버클리 박사

3. Globalization and the Asian Century

임원혁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Part II: Country Perspectives on a Changing Growth Agenda: Korea

4. Digital Transformation, Digital Markets, and Economic Strategy

다이앤 코일 케임브릿지대 교수

5. Double Standard: Economic Policy Is Mostly Industrial Policy

저스틴 이푸 린 북경대 교수
셀레스탱 몽가 하버드대 교수

Part III: Country Perspectives on a Changing Growth Agenda: Korea

6. Digital Trade Policie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버나드 호크만 EUI 교수

7. Global Value Chains in a Changing World

이시욱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Part IV: New Financial Dynamics

8. The Implications of Digital Technologies

에스와 프라사드 코넬대 교수, 美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위원

9. Strengthening the Global Financial Architecture

함준호 연세대 교수
최우진 서울시립대 교수

❖ 첨부 3. 보고서 표지

